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9년 8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 학위논문

영어 동사구 전치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선 현 진

영어 동사구 전치에 관한 연구

A study of VP-Preposing in English

2009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선 현 진

영어 동사구 전치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 고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전공)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선 현 진

선현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9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i
1. 서 론	1
2. 동사구 전치의 통사적 특성	
2.1 주절현상	3
2.2 명시성 조건	7
2.3 동사구 전치와 VAR 전치	11
2.4 요 약	12
3. 동사구 전치의 담화-화용론적 특성	
3.1 명제확인	15
3.1.1 독립적 명제확인	15
3.1.2 양보적 확인	17
3.1.3 정도 확인	19
3.2 명제유보	21
3.3 동사구 전치와 조응범주	22
3.4 동사구 전치와 시제, 상(aspect), 서법조동사	25
3.5 동사구 전치와 다른 전치들간의 관계	27
3.6 요 약	31
4. 결 론	33
참 고 문 헌	35

ABSTRACT

A study of VP-Preposing in English

Sun, Hyun-Jin

Advisor : Prof. Ko-Hee Lee, Ph. D.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escribe and analyze the phenomena of Verb Phrase Preposing(VPP) in English and VPP can be explained with syntax and pragmatics.

First of all, VPP usually shows main clause phenomena from a syntactic point of view. It often occurs in the main clause of a sentence, not subordinate. Secondly, VPP follows Explicitness Condition. It means that the preceding clause must have the same verb with the following verb in VPP. Even though the two verbs are different in form, they can be accepted if they have the same morphological root. Finally, it is discussed that the element outside VP can be preposed with the VP together.

An analysis of a corpus of VPP data shows that VPP serves two major functions in discourse. First of all, it affirms a speaker's belief in a salient proposition by obviously stimulated in the prior discourse. There are three kinds of Proposition Affirmation. One is Independent Proposition Affirmation. It confirms a proposition that is neither semantically entailed by nor presupposed in the prior discourse. Another is Concessive Affirmation. It asserts a proposition that stands in rhetorical opposition to another proposition conceded in the prior discourse. Scalar Affirmation is the last one. It affirms a proposition whose predicate is construable as a scale upon which the subject represents a high value. Secondly, VPP suspends the speaker's belief in a clearly aroused and salient proposition. It is called

Proposition Suspension. The connective 'if' usually serves an important function in the Proposition Suspension. Thirdly, it is supposed that VPP is a kind of verbal anaphora. It assumes that the domain of VPP can be extended to the preceding three clauses. Fourthly, it is investigated tense, modals, and aspect in VPP. Finally, it is discussed that Noun Phrase Preposing and Adjective Phrase Preposing can be explained as VPP and which points between VPP and So-Preposing have in common, and yet are different.

1. 서 론

의사소통에서 전달자는 자신의 생각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정보전달에 가장 적합한 표현을 선택하게 된다. 다음 문장을 보자.

(1) Jane said that John passed the exam.

Jane이라는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인 John이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을 들은 Jane의 친구 Juliet이 자기 친구의 남자친구인 John의 합격 사실에 들떠 그것을 강조해 말하고 싶어한다고 하자. 이때 단순히 'Jane said that John passed the exam, and he passed the exam.'처럼 앞에서 한 얘기를 다시 하는데 그친다면 Juliet의 의도는 글에서 충분히 전달되지 못 할 것이다. 이런 Juliet을 돕는 표현의 하나로 동사구 전치 현상이 있다. 아래의 예를 보자.

(2) a. Jane said that John *passed the exam*, and pass the exam he did.

b. *Jane said that John *passed the exam*, and succeed in the exam he did.

동사구 전치 현상은 다른 전치현상들처럼 어떤 명제를 확인하여 강조하거나 보류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동사구 전치에서만 나타나는 통사적 특성인 명시성 조건 때문에 담화·화용론적 관점에서는 (2a, b) 모두 다 정문으로 예측되지만 (2a)만 정문이고 (2b)는 비문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사구 전치 현상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봐 문장의 형태가 어떠해야 하는 가를 알아보고, 그러한 문장들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담화·화용론적 관점에서 좀 더 심도있게 살펴봄으로써 학습현장에서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동사구 전치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동사구 전치의 통사론적 특성을 검토한다. 동사구 전치는 주로 주절에서 나타나고 종속절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주절현상, 동사구 전치문에서 전치된 동사와 형태상으로 동일한 동사가 앞 문장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명시성 조건, 그리고 동사구가 전치될 때 동사구만 전치되는지 동사구를 넘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약 부분에서는 간단한 총 정리와 함께 담화·화용론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앞 문장에서 제기된 명제를 확인하거나 보류하는 동사구 전치의 기능이 세분화되어 다루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복된 표현은 비문법적이거나 양보확인, 정도확인에서는 놀람이나 감탄 같은 화용론적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중복 사용된 표현이 오히려 정문을 만드는 특별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사구 전치를 조응(anaphora)으로 봤을 때 그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동사구 전치가 시제, 상(aspect), 서법조동사에서 나타났을 때 그 의미는 어떻게 바뀌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명사구 전치와 형용사구 전치 같은 다른 전치와 동사구 전치는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 살펴보고 동사구 전치와 가장 유사한 So전치(So Preposing)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해 보려고 한다. 4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정리하여 본 논문의 결론을 지었다.

2. 동사구 전치의 통사론적 특성

동사구 전치는 주로 주절에서 나타나고 종속절에서 전치가 되면 비문이 되는 주절현상을 보이는 데 때로는 종속절에 나타나기도 한다. 어떤 구문이 종속절에 매립될 수 있고, 언제 매립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자. 또한 동사구 전치문에서 전치된 동사와 형태상으로 동일한 동사가 앞 문장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명시성 조건과 동사구가 전치될 때 동사구만 전치되는지 동사구를 넘어가는지를 설명해 보려고 한다.

2.1. 주절현상

동사구 전치는 주절에서 주로 나타나고 종속절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주절현상을 보인다. Emonds(1976:31, 32)는 이것을 주제화(Topicalization)와 관련하여 설명했다. 주제화란 명사구를 문장에서 가장 높은 곳에 붙이는 변형이고, 이러한 변형은 뿌리문 변형이기 때문에 매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래의 예를 보자.

- (3) a. *Each part* John examined carefully.
- b. *I fear (that) *each part* John examined carefully.
- c. *Our daughters* we are proud of.
- d. *We are going to the school play because *our daughters* we are proud of.

위 예 (3)에서 주제화가 일어난 (3a), (3c)가 (3b), (3d)에서처럼 매립되었을 때 비문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동사구 전치 또한 동사구를 문장의 앞으로 전치시키는 주제화이고, 이러한 변형은 뿌리문 변형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매립될 수 없다. 다음의 예를 보자.

- (4) a. John hoped that *Mary would find his hat*, but find it she could not.
- b. *John hoped that *Mary would find his hat*, but I wonder how find it she ever could.
- c. John intends to *make a table*, and make one he will.

d. *John intends to *make a table*, and his wife thinks that make one he could

위 예 (4)에서 주제화를 통한 뿌리문 변형의 하나인 동사구 전치문 (4a)와 (4c)가 (4b)와 (4d)에서처럼 매립되었을 때 비문이 되는 걸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동사구 전치문이 주절현상을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하지만 주절현상을 보이는 동사구 전치문이 종속절에서도 나타나는 때가 있다. 왜 그러는지 통사적, 의미적, 화용론적으로 살펴보자.

(5) a. John says *he'll win it*, and win it he will.

b. *John wants to *win it*, but the claim that win it he will is absurd.

위 예 (5a)처럼 동사구 전치는 주절에서 일어나고 (5b)처럼 종속절에서 나타나면 비문이 되는 게 보통이나 종속절에서 나타나도 정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주절현상을 보이는 구문 중 어떤 구문¹⁾이 매립될 수 있고, 언제 매립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가에 대한 물음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가설이 있다. 그것은 ‘주절현상을 보이는 구문은 대부분 어떤 것을 두드러져 보이게 할 생각으로 표현된 것이어서 그 구문들에 영향을 끼치는 명제가 종속절에 매립되면서, 화자가 지지하는 것이 강조될 때 지지를 나타내는 문맥은 종속절에서 주절현상을 보이는 구문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아래의 예를 보자.

(6) a. John says that *he'll win it*, and I think that win it he will.

b. *John says that *he'll win it*, but I don't think that win it he will.

위 예 (6)에서 명제인 ‘He'll win it’에 ‘그럴 것이다’라고 동의를 표시하는 (6a)는 정문인데 비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6b)는 비문인 걸로 보아 위의 가설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6)의 종속절 문장에는 주절에 포함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 이것은 주절현상을 보이는

1) 주절현상을 보이는 구문은 부정부사전치(Never before have prices been so high.)나 방향부사전치(In came the milkman.), 부가의문문(John eats pork, doesn't he?) 등 동사구 전치문을 포함해 15개 이상 되는 데 여기서는 동사구 전치문만 다룬다.

구문을 매립할 수 있는 가를 결정하는 원칙은 통사론적이 아닌 화용론적이거나 담화론적이라는 것을 강하게 제시한다. 주절현상을 보이는 구문의 매립가능성에 대한 가설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구문들이 예측하는 내용에 대해 화자가 얼마나 동의하는가 이다. 주절현상을 보이는 구문이 편안하게 안착할 종속절 환경의 범위가 다양하겠지만 동의를 표시하거나 동의가 내포된 정도에 따라 정렬된 종속절 환경의 서열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매립절의 내용에 대해 화자의 동의가 미리 전제되어 있는 종속절에 주절현상을 보이는 구문이 더 쉽게 매립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반대도 가능하리란 걸 알 수 있다. 아래의 예에서 서열에 따른 순서를 확인해 보자.

(7) Types of complement-taking verbs, with examples:

- a. Agreement presupposed: wishy-washy factives(know); 'semi-factives'(discover, realize); emotive factives(regret).
- b. Agreement asserted: I say, I said; I think; I claim.
- c. Agreement conversationally implied: X says, X thinks.
- d. Neutral: guess, seem, possible.
- e. Disagreement implied: X claims.
- f. Disagreement asserted: I doubt, I deny.
- g. Disagreement presupposed: pretend.²⁾

위 표 (7)에서 동의가 전제되어 있는 동사 *know*부터 분명하지 않는 *guess*를 지나 아예 부정적인 *pretend*까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표 (7)의 순서는 아래의 예 (8)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 (8) a. Bill wanted *to win*, and I realize that win he did.
- b. Bill wanted *to win*, and John says that win he did.
- c. ^{??}Bill wanted *to win*, and I guess that win he did.

2) 이 표의 위계는 동사구 전치가 아닌 다른 주절현상을 보이는 구문들에서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약간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로, 1인칭 *factives*는 3인칭 *factives*보다 훨씬 더 쉽게 주절현상을 보이는 구문들을 매립한다. 둘째로, *seem*이 사실 서술적인 표현이 아니라서 *realize*보다 덜 받아들여질 것 같지만 거의 비슷하게 매립문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다. 셋째로, 보통으로 나타나 있는 *guess*는 종속절에서 매립이 거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이고, 마지막으로 제일 아래에 있는 *pretend*는 많은 사례들에서 *doubt*보다 종속절에서 훨씬 더 잘 매립되는 걸로 나타났다.

d. *Bill wanted *to win*, and I pretended that win he did.

위 예 (8)에서 문장의 구조가 같은 (a-d)가 명제인 ‘to win’에 (8a, b)처럼 동의할 때엔 정문인데 비해 (8c)처럼 어중간하거나 (8d)처럼 아예 부정적일 때는 비문이 되거나 ‘?’가 표시되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다. 시제일치규칙 또한 주절현상을 보이는 동사구 전치문이 종속절에 매립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매립절이 어디에서도 통하며, 혼자서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직접 인용 같다면 보다 더 쉽게 매립될 수 있는 데 그것은 문장의 시제가 과거로 쓰여진 것은 현재보다 더 많은 문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를 보자.

- (9) a. [?]John said he wanted *to win*, and I knew that win he would.
b. *John said he wanted *to win*, and I know that win he would.
c. John said he wanted *to win*, and I know that win he will.

위 예 (9)에서 과거로 표현된 (9a)나 (9b)가 비문이거나 ‘?’가 표시된 것에 비해 현재로 표현된 (9c)는 정문인 걸로 보아 과거보다 현재로 쓰여진 것이 종속절에 더 쉽게 매립될 수 있다는 것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화자의 동의 정도나 시제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데 그것은 주절현상을 보이는 구문들의 화용론, 의미론, 통사론적 요소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여 어느 종속절에서는 매립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화자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표현하는 특정한 통사론적인 형태가 주절현상을 보이는 구문들의 매립 가능성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다고 해도 주절현상을 보이는 동사구 전치문이 종속절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은 거의 같은 통사적인 형태로 구성된 아래의 예 (10)이 부정적인 (a)에서 어중간한 (b)를 넘어 (c)나 (d)처럼 주절의 명제에 점점 더 동의해 갈수록 종속절에서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10) a. *Mary hoped *to win the medal*, but I rejected the claim that win it she would.
b. ^{??}Mary was hoping *to win the medal*, and I heard a claim that win it she would.
c. [?]Mary was hoping *to win the medal*, and I accepted the

claim that win it she would.

- d. Mary was hoping *to win the medal*, and I made the claim that win it she would.

2.2. 명시성 조건(Explicitness Condition)

동사구 전치의 두 번째 특성은 명시성 조건인데 이것은 동사구 전치문에서 전치된 동사와 형태상으로 동일한 동사가 이전 담화에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예를 보자.

- (11) a. Tchaikovsky was one of the most tormented men in musical history. *In fact, one wonders how he managed to produce any music at all.* But produce music he did.
[WFLN, Radio, Philadelphia], quoted in Ward, G.,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Prepos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5), p.745.
b. *Tchaikovsky was one of the most tormented men in musical history. But produce music he did.

(11a)가 정문인데 비하여 (11b)가 비문인 것은 앞 문장에 *produce*라는 동사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11b)도 의미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지만 'He produces music'이라는 명제가 앞 문장에서 보이지 않고, 적절한 표현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의미론적이 아닌 형태론적인 문제이다. 아래의 예에서 좀 더 살펴보자.

- (12) a. John didn't mean to *insult his aunt*, but insult her he did.
b. *John didn't mean to *insult his aunt*, but upset he did.

(13) a. I told my boss *I was going to quit today*, and quit I did.
b. *I told my boss *I was going to quit today*, and resign I did.

(12)와 (13)에서 동사 *insult*와 *upset*은, *quit*과 *resign*은 의미적으로 비슷하지

만 명시성 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이것으로 보아 동사구 전치에서 앞 문장과 동사구 전치문의 동일성은 의미적 동일성이 아니라 형태론적 동일성을 요구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래 (14)에서처럼 파생(derivation)에 따른 형태상의 차이는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예를 보자.

- (14) a. *Inside the Coors truck was beer for the students' consumption. Consume they did.*
 b. *Inside the Coors truck was beer for the students' consumption. *Drink they did.*

(14a)의 선행 문장에서 *consume*의 명사형인 *consumption*이 나타나 있고 동사구 전치문에서는 동사형인 *consume*으로 나타나 있으나 두 단어가 어원적으로 같은 것이 인정되므로 명시성 조건을 충족시켜 준다. 따라서 동사구 전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14b)와 같이 *consumption*과 *drink*는 어원적으로 공통성이 없고 명시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비문이 된다. 이제부터는 통사적 동일성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여격(dative) 이동과 명시성 조건과의 관계를 알아보자. 아래의 예를 보자.

- (15) *I wondered whether John would give the book to me, but give me the book he did.*

(15)에서는 앞 문장과 동사구 전치문 사이에 여격 이동(to me)이 일어났는데, 명시성 조건은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예에서 좀 더 살펴보자.

- (16) **/??? I wondered whether Bill would give me the book, but give the book to me he did.*

(16)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주어진 주제 안에 'to me'와 같이 초점을 받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로 여격이동이 일어나지 않은 아래의 동사구 전치문도 비문이라는 것이다. 아래의 예를 보자.

- (17) **/??? I wondered whether Bill would give me the book to me,*

but give the book to me he did.

위 예 (17)은 앞 문장의 명제와 동사구 전치문이 형태상으로 또 통사적으로 동일하여 명시성 조건을 위반하지 않지만 여전히 비문인 이유는 주어진 주제 안에 ‘to me’와 같이 초점을 받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양화사 이동(Quantifier Floating)과 명시성 조건과의 관계를 알아보자. 아래의 예를 보자.

(18) They say that *all the boys will have been drinking*, and drinking they will all have been.

(18)에서 앞 문장에서는 양화사 *all*이 주어 앞에 있으나 동사구 전치문에서는 조동사 *will* 뒤로 옮겨 간 것을 알 수 있다. 양화사가 이동했어도 위 문장은 여전히 정문이므로 명시성 조건은 양화사 이동(Quantifier Floating)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능동문에서 수동문으로의 전환과 명시성 조건과의 관계를 알아보자. 아래의 예를 보자.

(19) a. Many people doubt that *John will marry Mary*, but marry her he will.
b. *Many people doubt that *John will marry*, but married to him she will be.

(19a, b)에서 동사구 전치문은 능동문에서 수동문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능동문인 (19a)는 정문인데 비해 (19b)는 비문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명시성 조건은 능동문에서 수동문으로 전환된 문장을 용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there*-삽입(there insertion)과 명시성 조건과의 관계를 알아보자. 아래의 예를 보자.

(20) a. I guess that *many people would be waiting*, and waiting they are patiently.
b. *I guess that *many people would be waiting*, and many people waiting there were patiently.

(20b)는 *there*가 삽입되어 ‘there would be many people waiting’이 된 후에

동사구 전치가 일어났다. 하지만 비문인 걸로 보아 명시성 조건은 *there*-삽입 구문은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여격 이동이나 양화사 이동과 같은 변화는 주어-술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수동문으로 전환하거나 *there*를 삽입하는 것은 문장의 주술 관계를 바꿔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주술관계도 형태상의 주술관계라기 보다는 논리 구조상의 주술관계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아래의 예를 보자.

- (21) a. Having studied so hard for his exams, John figured he'd have a good chance of *passing the exams*. And pass he did.
 b. A teller handed over a packet of bills with *exploding red dye in it*, and explode that red dye did.

(21a)에서 *passing the exams*는 논리구조상 'He passes the exams'로 이해되며 문장의 내용도 John이 시험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할 것 같으며 결국엔 합격했다는 내용이어서 동사구 전치가 가능한 것이다. (21b) 또한 'exploding red dye'가 논리 구조상 'The red dye explodes'로 이해되고 주술 관계가 인정되므로 동사구 전치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부정어 *not* 과 명시성 조건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아래의 예를 보자.

- (22) a. They expect that *John will not agree with Mary*, and agree with Mary he won't.
 b. They expect that *John will not agree with Mary*, and agree with Mary he will not.(a bit odd)
 c. *They expect that *John will not agree with Mary*, and not agree with Mary he will.
 d. ?They expect that *John will not agree with Mary*, and disagree with Mary he will.
- (23) a. ?They say that *John will not leave until tomorrow*, and leave until tomorrow he will not.
 b. *They say that *John will not leave until tomorrow*, and not leave until tomorrow he will.

- c. ²/*They say that *John will not leave until tomorrow, and stay until tomorrow he will.*

(22a, b)가 둘 다 명시성 조건을 지키고 있고 정문이지만 (22a)에 비해 (22b)를 모국어 화자가 더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조동사와 부정어가 축약되었는가, 안 되었는가의 차이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22c)와 (23b)에서 부정어 *not*이 전치되었을 때 비문이 되는 것으로 보아 부정어 *not*은 전치되지 않는 게 좋아 보인다. (22d)는 명시성 조건을 어기고 있지만 *disagree*와 *not agree*의 의미가 거의 같아서 모국어 화자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23c) 또한 명시성 조건을 어기고 있는 데 (22d)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전적으로 (stay vs. not leave) 어기고 있는가, 부분적으로(disagree vs. not agree) 어기고 있는가의 차이이다. 그 결과는 각 문장의 앞에 표시되어 있다. 정리하자면 부정어 *not*은 전치되지 않는 게 좋고, 동사보다는 조동사와 더 응집성이 있다. 그런 이유에서 조동사와 부정어 사이에 축약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2.3. 동사구 전치와 VAR 전치

동사구 전치문에서 전치되는 요소는 오직 동사구인지 아니면 동사구를 넘어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동사구 외의 요소가 전치되는 경우를 VAR 전치라 하고 VAR는 동사와 나머지(Verb and the Rest)를 의미한다. 아래의 예를 보자.

- (24) a. They say that *Mary criticized John for the matter without any evidence, and criticize John for the matter without any evidence she did.*
- b. *They say that *Mary criticized John for the matter without any evidence, and criticize John for the matter she did* without any evidence.
- b'. They say that *Mary criticized John for the matter without any evidence, and criticize John for the matter she did,* without any evidence.
- c. *They say that *Mary criticized John for the matter*

without any evidence, and criticize John she did for the matter without any evidence.

c'. They say that *Mary criticized John for the matter without any evidence, and criticize John she did, for the matter without any evidence.*

(24a)에는 두 개의 부사구(for the matter, without any evidence)가 동사구 전치문 안에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아 전치되는 것은 오직 동사구가 아니라 동사구와 그 나머지라는 것을 주장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24b)와 (24b')는 'comma(,)'가 있고, 없과의 차이가 있는 작은 쌍을 이루는 데 이때 'comma(,)'는 분리된 부사구가 전치된 요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아주 중요하고 정문과 비문을 나누는 역할을 한다. (24c)와 (24c')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정리하자면 전치되는 것은 동사구와 그 나머지인데 이것이 너무 무겁다면 조동사와 전치되지 않은 나머지 요소에 'comma(,)'가 요구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2.4. 요 약

이제까지 동사구 전치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봤다. 제일 먼저 동사구 전치는 주로 주절에서 나타나고 종속절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주절현상을 보였고, 동사구 전치문에서 전치된 동사와 형태상으로 동일한 동사가 앞 문장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명시성 조건을 필요로 했다. 마지막으로 동사구가 전치될 때 동사구만 전치되는지 동사구를 넘어가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전치되는 것은 동사구와 그 나머지인데 전치되는 요소가 너무 무겁다면 조동사와 전치되지 않는 요소 사이에 'comma(,)'가 요구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쯤에서 동사구 전치문의 구조를 살펴보자. 아래의 예를 보자.

(25) 이전 담화, 연결사(and, but, or if) - 동사구 - 주어 - 조동사.

이제까지의 논의대로라면 어떤 문장의 구조가 (25)와 같고 주절현상과 명시성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동사구 전치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문장은 적합할 것이다. 아래의 예를 보자.

(26) *John *passed the exam*, and pass the exam he did.

위 예 (26)은 동사구 전치문과 구조가 같고, 명시성 조건에도 부합되지만 비문이다. 그것은 예 (26)은 앞에서 제기된 명제를 확인하여 강조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반복이기 때문이다. (26)은 어떠한 새로운 정보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고 그래서 비문이 된다. 이것은 동사구 전치현상의 형태 뿐만이 아닌 담화·화용론적 특성 또한 다뤄져야 된다는 당위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25)에서 제시된 것처럼 이전 담화와 동사구 전치문을 잇는 연결사는 세 가지이다. 이는 이전 담화와 동사구 전치문의 의미적 관계에 따라서 연결사가 결정된다는 것인데 동사구 전치문의 이런 구조는 그 수만큼의 담화·화용론적인 기능을 제안한다. 3장에서는 이처럼 동사구 전치의 담화·화용론적 특성을 논의함으로써 통사론의 관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동사구 전치현상을 더 설득력 있고 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3. 동사구 전치의 담화-화용론적 특성

말과 글이 어떤 구조를 갖느냐에 따라 의미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다음 문장들을 살펴보자.

(27) John killed a tiger in the park.

- (28) a. A tiger was killed in the park by John.
b. It was a tiger that John killed in the park.
c. What John killed in the park was a tiger.
d. A tiger John killed in the park.

위 예 (27)의 'John killed a tiger in the park'는 (28)에서처럼 네 가지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이때 화자가 그 중 하나를 선택했다면 그 문장구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문장 구조 중의 하나가 바로 동사구가 전치된 문장이다. 동사구 전치문에는 두 가지 특별한 기능이 있다. 아직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명제를 확인하거나 유보하는 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이미 사실로 밝혀진 것은 동사구 전치의 대상이 되지 못 한다. 아래의 예를 보자.

- (29) a. *Yesterday *John bought a book*, and buy a book he did.
b. *I know that *John passed the exam*, and pass the exam he did.
c. *This letter proved that *he is still alive*, still alive he is.

(29)의 a, b, c는 모두 명시성 조건을 지키고 있으므로 표면상으로는 동사구를 전치시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9a)의 이전 담화에서 '어제 John이 책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미 사실로 밝혀진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동사구 전치를 시킬 수 없다. (29b) 또한 앞 문장에서 'John이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을 안다'고 전제되어 있고 (29c)에서는 동사 'prove'를 통해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동사구를 전치 시킬 수 없다. 그래서 동사구 전치는 주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동사³⁾가 사용된다. 그래서 'It seems that 명제(P), I think

3) 사실성 동사 : realize, find out discover, know, see, recognize, learn, regret, be sorry 등.

P, I believe P, I guess that P, Rumor has it that P'와 같은 표현들과 명제의 사실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부정사절, 동명사절이 동사구 전치문의 이전 담화에 서 나타난다. 아래의 예를 보자.

- (30) a. I think that *he passed the exam*, and pass the exam he did.
b. John went to the bookstore *to buy a book*, and buy one he did.
c. *Running into a robber on the street* is a bad luck, and run into a robber I did yesterday.

(30)에서 이전 담화에 쓰인 요소들은 명제가 사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생각이나 추측, 소문을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동사구 전치가 가능하다. 동사구 전치의 담화-화용론적 특성을 명제확인과 명제유보로 나누어 살펴보자.

3.1. 명제확인

명제확인이란 이전 담화 속에 있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신념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명제확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31) 명제확인(Proposition affirmation)(Ward 1990:743)

To affirm a speaker's belief in a salient proposition by explicitly evoked in the prior discourse.

Ward는 명제확인을 독립적 명제확인, 양보적 확인, 정도 확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⁴⁾

3.1.1. 독립적 명제확인(Independent Proposition Affirmation)

독립적 명제확인이란 앞의 담화에서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나 전제되어 있지 않은 명제를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의미가 들어나 있거나 전제되어 있는 것은

비사실성 동사 : say, suppose, expect, be (un)likely, be possible, be (im)probable 등.

4) 다음 부사들도 담화상에서 명제 확인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예) A: We're going to have a lot of problems now.

B: (**Indeed**, **So** we will, We **surely** will, **Absolutely**, **Correct**)

이미 사실로 들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부연 설명하는 것은 중복이기 때문이다. 독립적 명제확인에서는 접속사 *and*가 많이 쓰인다. 아래의 예를 보자.

- (32) a. As a member of a Gray Panthers committee, *we went to Canada to learn, and learn we did.* We learned the amazing contrast of the philosophy of our neighbor to the North that health care must be and is free and universal, whereas in the United States, where we often mistakenly believe we have the best health system around, 35million people 15 percent of our population-lack health insurance coverage, according to the Census Bureau.[Philadelphia Inquirer, 6/16/85: noted by Dominique Festival], quoted in Ward, G.,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Prepos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5), p.743.
- b. *John went to the post office to send a letter, and send it he did.*
- c. *It was necessary to pass, if I was to stay at Oxford, and pass I did.*⁵⁾

(32a)에서는 무엇을 배우기 위해 캐나다에 갔다는 것이 반드시 배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구 전치가 가능하다. (32b)에서는 편지를 보내기 위해 John이 우체국에 갔다는 것이 반드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앞, 뒤 문장 사이에 논리적으로 독립적인 관계가 성립되고 이 또한 동사구 전치가 가능하다. (32c)에서는 Oxford에 있으려면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사실이 꼭 시험에 합격했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앞 문장의 명제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것은 동사구 전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독립적 명제 확인에는 다음 문장에서 조건의 결과에 대한 확인을 포함

5) 앞 문장에서 제기된 명제가 사실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 그 명제의 사실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어+동사+목적어’로 된 문장은 적절하지 않다. (49c)를 아래 문장과 비교해 보자.

(49c') *It was necessary to pass if I was to stay at Oxford, *and I passed.*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Ward(1990)는 이러한 형태의 명제확인을 결과확인(Consequent Affirmation)이라 부른다. 아래의 예를 보자.

(33) A: Bill, you mustn't withdraw from the race. If you withdraw, *Williams wins by default*.

B: Then win he does.

(33B)는 앞 문장의 결과인 'Williams wins'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then*을 사용하여 앞 문장의 명제인 'Bill withdraws'도 사실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결과확인(Consequent Affirmation)에서는 결과부사(*then, so*)가 중요한데 이 부사가 있어야지 뒷 문장이 단순히 앞 문장의 명제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앞 문장의 당연한 결과로서 확인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⁶⁾

3.1.2. 양보적 확인(Concessive Affirmation)

앞 문장과 뒤에 따라오는 동사구 전치 문장사이에 의미적 대립이 생기고 이 대립된 관계에서 앞에서 제기된 명제의 사실성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앞, 뒤 문장 사이에 반대되는 내용을 나타내므로 연결사는 주로 *but*이나 *yet*이 쓰인다. 아래의 예를 보자.

(34) Waiting in long lines can be infuriating. Waiting in long lines to pay someone else money seems unconscionable. *Waiting in long lines to pay someone else more money than they seem to be entitled to is lunacy. But wait in line they did Monday in Chicago and the Cook County suburbs partaking in the semiannual ritual of settling up property taxes by the 6 p.m. deadline.*[Chicago Tribune, 8/8/89, p.3], quoted in Ward, G.,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Preposing" (Doctoral Dissertation,

6) 귀결부사 없이 사용되는 때도 있다.

A: Bill, you mustn't withdraw from the race. If you withdraw, *Williams wins by default*.

B: Well, win he does in any case, since everybody supports him.

(34)에서 ‘원래 내기로 되어 있는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 죽 늘어선 줄에서 기다리는 것은 미친 짓이지만 *Chicago*와 *Cook County*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는 내용인데, 이처럼 의미상으로 대립되는 명제를 확인하는 데 동사구 전치가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기능적으로 양보 확인의 역할을 한다.

(35) *Series EE and HH savings bonds are what the government sells to consumers. In today's inflationary age, they are absolute rip-offs. One wonders how government officials can sleep at night, taking widow's and orphan's money and paying 6.5% while inflation is running 10% and even the banks are offering 10-15%, albeit on a limited basis through their certificates of deposit. Yet sell the bonds they do.*

(35)에서 정부가 *EE*와 *HH*번호를 가진 채권을 사람들에게 팔고 있고 그것은 완전한 도둑질이라고 이미 전제되어 있는데도 뒤에서 다시 동사구를 전치시켜 다시 주장하고 있다. 이것만 보면 이미 앞 문장에서 전제된 문장을 동사구 전치시켰으므로 두 문장이 중복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역설이 관심의 초점이 되므로 동사구 전치가 가능하다. 아래의 (35')처럼 *yet* 대신에 *and*를 대입하면 양보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35'). *Series EE and HH savings bonds are what the government sells to consumers. In today's inflationary age, they are absolute rip-offs. One wonders how government officials can sleep at night, taking widow's and orphan's money and paying 6.5% while inflation is running 10% and even the banks are offering 10-15%, albeit on a limited basis through their certificates of deposit. *And sell the bonds they do.*

이것으로 봐서 양보 확인은 양보를 나타내는 반대 접속사(adversative connective)의 기능과 확인의 의미를 담은 전치 기능을 둘 다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보 확인은 앞 문장과 논리적으로 독립된 명제에서 나타나지만 앞 문장에서 전제된 명제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것은 의미적으로 중복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아래의 예를 보자.

- (36) While he and his mother had often talked about writing her story, he went on, 'the mundane things we do with our lives' had prevented them. *It was ironic, he continued, that he eventually learned more from his mother's papers and tapes than he had directly from her. But learn her story he did,* and article is not only her story, about what she and other Jews endured, it is also his story, about the fragile process by which memory is kept alive.[Philadelphia Inquirer Magazine, 5/6/83, p.2], quoted in Ward, G.,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Prepos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5), p.743.

(36)의 명제인 'He learns her story'가 앞 문장에서 이미 확인되었지만 화자가 어머니에게 직접 들은 것보다 문서나 테이프를 통해 더 많이 배웠다는 역설과 같은 수사학적 의미가 생기면서 이미 전제된 명제라 할지라도 동사구 전치를 할 수 있다.

3.1.3. 정도확인(Scalar Affirmation)

앞 문장에 나타난 개체가 정도(degree)나 등급(scale)을 나타내는 서술어가 포함되어 있는 뒷 문장에서 최고의 등급에 속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앞 문장에서 한 얘기를 뒷 문장에서 다시 반복하는 것은 같은 말의 반복이기 때문에 중복(duplicate)이나 정도 확인에서는 명제를 최대한 강조하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사실이나 놀라움을 표현해서 그 명제의 주어가 최고의 등급에 속하

는 것을 나타낸다. 최고의 등급에 속한다는 것은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고 그래서 동사구 전치가 가능하다. 정도 확인의 연결사는 주로 *and*가 쓰인다. 아래의 예를 보자.

- (37) a. Asked what thought about during today's race on a sultry day, [Tour de France winner Greg Lemond] said: I didn't think, *I just rode. Ride he did.* [New York Times, 7/23/89, p.1; noted by Judith Levi], quoted in Ward, G.,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Prepos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5), p.744.
- b. *Smith scored a goal-and score one he did.*
- c. *I am so proud of *Andy for getting a hundred on his exam. And get a hundred he did.*
- d. I am so proud of *Andy for passing the exam. And pass he did.* - He got a hundred.

(37a)는 명제는 이미 드러나 있지만 동사구가 전치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더운 날 자전거 경주에서 끝까지 온 힘을 다해 달린 주어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동사구 전치가 가능한 것이다. (37b)는 Smith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묘사되어 있지는 않으나, 득점을 했다는 것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서 주어가 최고의 등급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정도 확인이 명제 확인의 한 종류이나 앞에서 제기된 명제를 확인하는 데만 그친다면 그것은 비문이 된다. (37c)를 보자. 앞에서 제기된 명제의 반복일 뿐 정도(degree)상으로 최고의 등급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7c)의 정도확인론 부적절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도 확인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 제기된 명제를 최대한 강조하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사실이나 놀라움을 표현해서 그 명제의 주어가 최고의 등급에 속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37d)에서는 동사 *pass*가 정도(degree)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즉 시험이 어려워 합격하기 힘들에도 주어가 합격했고 100점을 맞았다는 사실이 주어가 최고의 등급에 속한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동사구 전치가 가능한 것이다.

3.2. 명제유보

명제유보란 앞 문장에 나타난 명제에 대해 화자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미루는 것이다. 명제 유보에서는 앞 문장의 명제가 뒤에 따라오는 동사구 전치문장에 나타나 있어야 하며 연결사는 주로 *if*가 쓰인다. 아래의 예를 보자.

- (38) a. *Mark finished his thesis late, if finish it he did.*
b. *It's strange that Joseph objected, if object he did.*

(38a)의 경우 *finish*는 의미상 ‘-를 끝내다’는 말이어서 Mark가 논문을 끝마쳤다는 건 이미 사실로 들어나 있다. 그래서 동사구를 전치시킬 수 없지만 연결사 *if*로 시작하는 동사구 전치문이 앞 문장에서 제기된 명제를 유보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사구 전치가 가능하다. (38b)는 Joseph이 반대한다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지만 앞 문장에서 제기된 내용을 *if*가 이끄는 동사구 전치문을 사용해서 Joseph이 반대했다는 것을 유보시키고 있다. 명제 유보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앞 문장이 동사구가 전치된 뒤 문장보다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예를 보자.

- (39) a. *Elizabeth killed Laura with an axe, if kill her she did.*
b. **Elizabeth killed Laura, if kill her she did.*
c. **Elizabeth killed Laura, if kill her with an axe she did.*
d. *John drinks alone, if drink he does.*
e. **John drinks, if drink he does.*

(39a)와 (39d)에서 보이는 것처럼 앞 문장이 뒤에 따라오는 동사구 전치문보다 더 많은 정보(with an axe나 alone처럼)를 가지고 있으면 정문이지만 (39b), (39e)처럼 같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39c)처럼 더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비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Horn(1991)은 명제 유보는 앞 문장과 동사구 전치가 된 뒤 문장 사이에 수사학적으로 대조가 되거나 반대가 될 때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Horn의 이러한 제안은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아래의 문장은 수사학적으로 대조되지 않지만 가능하다.

(40) *I'm pleased Pat dogs eat cheese, if eat cheese they do.*

그럼 이번엔 수사학적으로 대조되게 하기 위해 *if* 대신 *but*을 넣어보자.

(40') **I'm pleased that Pat dogs eat cheese, but eat cheese they do.*

*but*으로 바꿨을 때 (40')가 비문이 되는 것으로 보아 Horn이 말한 것처럼 명제 유보는 수사학적으로 대조가 되거나 반대가 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명제 유보는 Horn(1972)이 주장한 것처럼 전제된 것은 보다 적은 정보를 주는 방향으로 유보되어야 한다는 규칙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동사구 전치와 조응(anaphora)범주

동사구 전치문에서 확인되거나 유보되는 명제는 반드시 앞 문장에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동사구 전치문의 지시조응적 관계라고 말한다면 그 범주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아래의 예를 보자.

(41) Mary handed me some mexican *jumping beans*. And jump those beans did.

(41)에서 명제인 *jumping beans*는 뒤에 오는 동사구 전치문에서 다시 제시되어 분명한 지시 조응적 관계를 보여준다. 모든 동사구 전치문이 이렇다면 지시조응적 관계는 어느때나 명확히 설명될 수 있겠지만 모든 지시대상이 바로 앞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앞 문장과 동사구 전치문 사이에 다른 문장이 놓일 수 있다. 아래의 예를 보자.

(42) *Late last month, the 16 nations that oversee the continent through the 25-year-old antarctic treaty met there in the slowly moving effort to develop a minerals agreement. They gathered amid in the growing concerns among environmentalists that mineral exploration will savage the*

continent and the rising Third World criticism, voiced in the UN, that a self-selected "club" of nations should not decide the fate of Antarctica behind closed doors. But meet they did, in closed session, and interviews with members of the French, West German, British, New Zealand and America delegations revealed an unopposed, dogged termination, despite the world's critics, to forge a minerals treaty in that "select club"[Philadelphia Inquirer p2-F2/12/84], quoted in Ward, G.,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Prepos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5), p.747.

위 예 (42)에서 명제가 나타나 있는 'Late last month, —'와 동사구 전치가 일어난 'But meet they did, —' 사이에 'They gathered ~ behind closed doors.'가 놓인 것을 볼 수 있다. (43)~(45)을 보면 지시조응적 관계가 두 문장 이상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 *"In the early days, our productions were cheap and cheerful"* says producer John Weaver of London-based Keefco. "We'd go into a seven-light studio, shoot the band in one afternoon and edit as we went along. The client would walk out with a tape that day." Today's tapes may still be cheerful, but cheap they are not.

(44) *If Robert Lewis hadn't resigned as codirector of the actors studio in 1948 over what he felt to be a professional slight at the hands of Elia Kazan, and if Mr. Kazan hadn't been so successful that he had to resign as its other codirector three years later, American acting might have taken a completely different course... By the time he left the group, Mr. Lewis had some very definite ideas about acting. Given his concern about the subject, it seems shortsighted of him*

to have quit the leadership of the Actors Studio (and with it his opportunity to mold American acting), piqued that Mr. Kazan had advised him not to direct a musical but later accepted the job himself. But resign he did, and Mr. Kazan, faced with an enormous number of Hollywood and Broadway commitments, soon found he couldn't run the Actors Studio by himself. [New York Times, 6/10/84, p.12; review of Robert Lewis's *Slings and Arrows*: noted by Julia Hirschberg], quoted in Ward, G.,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Prepos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5), p.746.

- (45) *Series EE and HH savings bonds are what the government sells to consumers*. In today's inflationary age, they are absolute rip-offs. One wonders how government officials can sleep at night, taking widow's and orphan's money and paying 6.5% while inflation is running 10% and even the banks are offering 10-15%, albeit on a limited basis through their certificates of deposit. Yet sell the bonds they do. [William E. Donoghue and Thomas Tilling, William E. Donoghue's *Copley money market guide* 13], quoted in Ward, G.,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Prepos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5), p.750.

위 예 (43)에서는 '*In the early days*'와 'but cheap they are not' 사이에, (44)에서는 '*If Robert Lewis hadn't resigned*'와 'But resign he did' 사이에 마지막으로 (45)에서는 '*Series EE and HH savings bonds are*'와 'Yet sell the bonds they do' 사이에 두 문장이 놓인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동사구 전치의 조응 범주는 앞에 있는 세 문장까지 넓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 동사구 전치와 시제, 상(aspect), 서법조동사

이제까지 논의했던 모든 예들은 조동사 *do*나 *did*를 써서 현재나 과거에 일어난 명제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시제와 상 또한 가능하다. 그중에서 시제와 상의 조동사 요소인 *have*와 *be*를 통해 완료와 진행 명제에 대한 화자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 (46) a. *It seems as if it has taken forever for Robert Altman's 'Come back to the 5 & Dime Jimmy Dean, Jimmy Dean' to make it to Philadelphia.* It has been playing in LA for almost a year, and came and went in NY so long ago it's only a dim memory there. But come here it has—and, as it turns out, the timing is pretty good.
- b. One factor is the Irani belief that there is no greater deed than *to die for Iran*, and dying they are, by the thousands.[World News tonight, 7/14/83], quoted in Ward, G.,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Prepos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5), p.753.

위 예 (46)에서 양보적 확인인 (46a)의 명제 'It comes here'는 완료시제 안에서, 독립적 명제 확인인 (46b)의 명제 'They die'는 진행의 상 안에서 확인되고 있다. 동사구 전치는 다양한 서법조동사 안에서 명제를 확인할 수 있다. 동사구 전치가 서법조동사 안에서 일어나면 그 구문은 앞에 제기된 명제 확인과 더불어 서법조동사의 의미가 더해진다. 다음의 예를 보자.

- (47) A: *I just think our team knows how to win.*
B: And win they must.

- (48) Nobody thinks *Jones can win the election*. But win he can, with a little help from his wife's estate, that is.

(49) After he finishes, *he goes*. And go he should.

*must*가 쓰인 (47B)에서는 앞에 제기된 명제 ‘They win’의 사실 확인 뿐만 아니라 이겨야 한다는 당위성이 나타나 있다. (48), (49) 또한 단순한 명제 확인에 그치지 않고 명제 확인에 가능성(*can*)과 당위성(*should*)이 담겨 있는 걸 알 수 있다. 다른 명제 확인과 마찬가지로 서법조동사 안에서 확인되는 명제는 앞 문장과 논리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전 문장에서 의무가 전제되어 있을 때 다음 문장에서 다시 그 의무를 주장하는 것은 중복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를 보자.

- (50) a. John finally realized that *he should like his job*. *And like it he should—they pay him much more than he’s worth.
b. John finally realized that *he likes his job*. And like it he should—they pay him much more than he’s worth.
c. John finally realized that *he likes his job*. *And like it he does—they pay him much more than he’s worth.
d. John finally realized that *he should like his job*. And like it he does—they pay him much more than he’s worth.

위 예 (50a)에서 의무가 포함된 명제를 의무를 나타내는 서법조동사가 있는 동사구 전치문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은 중복이기 때문에 비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50)에서 *should*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그 이유는 명제인 ‘he likes his job’이 이미 사실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서법조동사의 의미가 추가되지 않고 단순히 동사구 전치를 통해서 명제를 확인하면 중복이어서 (50c)처럼 비문이 되기 때문이다. (50b, d)에서처럼 선행 문장이나 동사구 전치문에 서법조동사의 의미를 더해준다면 그 확인은 적합하다. 동사구 전치가 다양한 시제, 상, 서법조동사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유보도 가능할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 (51) a. A: It’s been so nice talking to you. But it’s that time...
B: Very well. Go ahead and *leave*, if leave you must.
b. Johnny, *I’d like you to solve this problem*, if solve it you can.

위 예 (51a)에서 초점은 유보되는 명제인 ‘you leave’의 사실이 아닌 ‘가야 한다’는 당위성이다. 마찬가지로 (51b)에서 명제 유보를 통해 화자가 미루고자 하는 것은 ‘you solve this problem’이 아닌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이것으로 명제유보에서는 명제확인과는 달리 서법조동사가 포함되어 유보된 명제는 명제의 사실이 아닌 서법조동사의 의미가 초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3.5. 동사구 전치와 다른 전치들간의 관계

제일 먼저 명사구 전치와 형용사구 전치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아래의 예를 보자.

- (52) a. It is hard to imagine that *the little tropical island was a battleground*. But a battleground it was.
 b. They say that *atomic energy is a controversial issue*. And controversial it is.
 c. *My biggest problem*, if problem it is, is not being able to say ‘No’ to people.
 d. I’m sorry *I was rude last night*, if rude I was.

위 (52)에서 명사구 전치와 형용사구 전치가 각각 순서대로 놓여있고 (52a)와 (52b)는 명제확인의 기능을, (52c)와 (52d)는 명제유보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Ward(1990:756, 759)는 명사구 전치와 형용사구 전치가 기능적으로 동사구 전치와 같다는 걸 인정하지만 전치된 요소가 같지 않기 때문에 동사구 전치와 구별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사구 전치문의 구조인 ‘동사구 - 주어 - 조동사’에서 동사구 자리에 명사구와 형용사구가 놓여서 다르다는 것인데 이것은 각각의 전치문에서 조동사 자리에 *be*동사가 놓인 경우라면 비록 명사구와 형용사구가 전치되었다고 해도 동사구 전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영어에서 *be*동사는 본동사와 조동사, 즉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be*동사가 포함된 문장이 동사구 전치현상으로 형태가 바뀌어서 *be*동사가 전치 된다면 조동사 자리가 비어 그 문장은 동사구 전치문의 구조와 다르고, 또한 조동사의 역할 중에 하나인 시제를 전달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be*동사는 시제를 전달하기 위해 본동사의 기능을 포기하고 그래서 전치될 수 없다. 이것이 *be*동사가 *mother node*

VP(Verb Phrase)를 동반하지 않는 이유이다. 그리고 위 예 (52a-d)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예들은 명시성 조건을 만족하고 있고(a battleground, controversial, problem, rude) 명제확인과 명제유보라는 동사구 전치의 담화·화용론적인 기능도 수행하고 있어서 동사구 전치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명사구 전치와 형용사구 전치가 다 동사구 전치라고는 할 수 없다. 특히 형용사구 전치는 대부분의 경우 조동사 자리에 *be*동사가 놓이기 때문에 이것이 동사구 전치의 예인지 형용사구 전치의 예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아래의 예를 보자.

- (53) A: This is not another vulgar disgusting sexploitation film.
 B: *Vulgar* it is not. *Dumb* it is.

위 예 (53)에서 *vulgar*는 명시성 조건을 충족하고 명제확인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동사구 전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dumb*은 명제확인의 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명시성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 해 이것이 형용사구 전치인지 동사구 전치인지 분명하지 않다. 어떤 형용사구 전치는 명시성 조건은 충족시키지만 명제확인에는 부정적인 경우가 있다. 아래의 예를 보자.

- (54) A: I can't stand R. He's stupid, arrogant, and totally off-the-wall.
 B: *Stupid* I wouldn't really say he is.

위 예 (54)에서 전치된 형용사구 *stupid*는 명시성 조건에 맞지만 명제확인에는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명사구 전치와 형용사구 전치가 동사구 전치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처럼 명사구 전치와 형용사구 전치는 형태와 기능에서 동사구 전치와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관련 있다고 해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조동사 자리에 일반동사가 놓여도 동사구 전치문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구문들이 있다. 아래의 예를 보자.

- (55) a. A: Why does Mr. Jones have to sleep in the Green Room? Why can't Michael stay there?
 B: Listen, I've put Mr. Jones in the Green Room and

in the Green Room he stays!

- b. East German leader Erich Honecker has dismissed the possibility of German reunification and has offered major concessions to the Soviet Union on other issues that have disrupted Soviet-East German ties in recent months. *'The two German states exist, and two they will remain.'* Honecker said in an article published yesterday in the Soviet Communist Party daily Pravda.

위 예 (55a)에서 명제는 'Mr. Jones is in the Green Room' 이다. 누군가가 어느 곳으로 보내졌다면 그곳에 어느 정도의 시간동안 머무를 거라고 생각되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이것은 앞에 독립적 명제확인 의 예였던 '*John went to the post office to send a letter, and send it he did*'에서 편지를 보내기 위해 John이 우체국에 갔다는 것이 반드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앞, 뒤 문장 사이에 논리적으로 독립적인 관계가 성립되고 그래서 동사구 전치가 가능한 것과 같다. 같은 이유로 (55a)의 명제는 앞 문장에 논리적으로 독립적이고 그래서 전치가 가능하며 또한 그것을 통해 명제확인을 할 수 있다. (55b)의 명제인 'The number of German states is two'도 지금 독일 정부의 수가 둘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55b) 또한 앞 문장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독립적인 관계가 성립되고 전치되어 명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55)에서 전치된 문장의 끝이 조동사로 끝난 다른 동사구 전치문들과 기능이 비슷하다고 해도 위 예 (55a, b)는 명제확인과 함께 계속 혹은 지속이라는 의미적인 개념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동사구 전치문과는 다르다. 다음으로 동사구 전치와 관련된 몇 가지 다른 규칙들을 살펴보자. 아래의 예를 보자.

(56) a. Relativization

I proposed that I will wash the dishes, *which* I will.

b. Resumptive Clause Topicalization

He sat down. *Having sat down*, he undid his tie.

c. So 전치(So Preposing)

I said that I will wash the dishes, and *so* I will.

d. 동사구 전치

I said that I will wash the dishes, and *wash the dishes* I will.

위 예 (56)에서 이탤릭체로 표시된 부분에는 동사구 전치와 어느 정도 관련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중에서 *So*전치(*So Preposing*)가 동사구 전치와 가장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 동사구 전치와 *So*전치의 차이점을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So*전치를 조응으로 봤을 때 조동사 구성요소의 어떤 하위 부분까지도 다룰 수 있는 데 비해 동사구 전치에는 제약이 많다. 아래의 예를 보자.

- (57) a. *They say that Bill might have been singing, and have been singing he might.
- b. They say that Bill might have been singing, and *so* he might.
- c. ^{*/?}They say that Bill might have been singing, and been singing he might have.
- d. They say that Bill might have been singing, and *so* he might have.
- e. They say that Bill might have been singing, and singing he might have been.
- f. They say that Bill might have been singing, and *so* he might have been.

위 예 (57)에서 *So*전치는 *might* 다음에 오는 모든 요소들을 다룰 수 있는데 비해 동사구 전치는 *singing*만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기능상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아래의 예를 보자.

- (58) a. They say that *Tom likes ice cream*, and so he does.
- b. They say that *Tom likes ice cream*, and like ice cream he does.

위 예 (58a, b)의 의미가 서로 비슷하다 하더라도 동사구 전치문인 (58b)가 *So*전치문인 (58a)보다 화자의 관점을 더 강조한다.(William O'Grady) 그래서

(58a)가 앞 문장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동의를 나타낸다면 (58b)는 그 명제를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비슷하게 Joseph E. Emonds는 *So*전치문은 사실을 강조하고 동사구 전치문은 동사구의 내용을 강조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예를 제시한다. 아래의 예를 보자.

- (59) a. They say Tom *drives to work*, and so he does, but rarely.
 ²b. They say Tom *drives to work*, and drive to work he does, but rarely.

위 예에서 (59a)에 비해 (59b)가 약간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건 ‘drive to work’가 ‘주로 차를 몰고 출근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보아 Emonds의 주장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알 수 있다.

3.6. 요 약

이제까지 동사구 전치의 담화·화용론적 특성을 언급해왔다. 동사구 전치의 기능은 크게 명제확인과 명제유보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명제확인이란 이전의 담화 속에 있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신념을 확인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독립적 명제확인, 양보적 확인, 정도 확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진다. 독립적 명제확인은 앞의 담화에서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나 미리 가정되어 있지 않는 명제를 확인하는 것이고, 양보적 확인이란 앞 문장과 뒤에 따라오는 동사구 전치 문장 사이에 의미적 대립이 생기고 이 대립된 관계에서 앞에서 제기된 명제의 사실성을 주장하는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정도확인(Scalar Affirmation)이란 앞 문장에 나타난 개체가 정도(degree)나 등급(scale)을 나타내는 서술어가 포함되어 있는 뒤 문장에서 최고의 등급에 속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명제유보란 명제확인과는 달리 앞 문장에 나타난 명제에 대해 화자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미루는 것이다. 명제 유보에서는 앞 문장의 명제가 뒤에 따라오는 동사구 전치문장에 나타나 있어야 하며 연결사는 주로 *if*가 쓰인다. 그리고 명제 유보에서는 Horn(1972)이 주장한 것처럼 전제된 것은 보다 적은 정보를 주는 방향으로 유보되어야 한다는 규칙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사구 전치문에서 확인되거나 유보되는 명제는 반드시 앞 문장에 제시되어

야 하는 데 이것을 동사구 전치문의 지시조응적 관계라고 한다면 그 범주는 앞에 놓인 세 문장까지 넓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사구 전치와 시제, 상, 서법조동사와의 관계에서는 동사구 전치는 *do*나 *did*를 통해 현재나 과거에서만 명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제와 상을 나타내는 *have*나 *be*진행형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동사구 전치문에 서법조동사가 포함되면 확인하고자 하는 명제에 서법조동사의 의미가 덧붙여진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서법조동사가 포함된 명제는 다른 명제확인처럼 이전 담화에서 논리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하며 명제유보에서 서법조동사가 포함되어 유보된 명제는 명제의 사실이 아닌 서법조동사의 의미가 초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사구 전치와 명사구 전치, 형용사구 전치의 관계에서는 명시성 조건을 충족하고 명제확인이나 명제유보와 같은 기능을 하며 전치문의 끝이 *be*와 같은 조동사로 끝난다면 명사구 전치문과 형용사구 전치문도 동사구 전치문으로 볼 수 있지만 형용사구 전치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be*조동사로 끝나 형용사구 전치문인지 동사구 전치문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동사구 전치문과 *So*전치문(*So Preposing*)은 비슷해 보이지만 *So*전치를 조응으로 봤을 때 조동사 구성요소의 어떤 하위 부분까지도 다룰 수 있는 데 비해 동사구 전치에는 제약이 많았고 기능적으로는 *So*전치문이 명제에 대한 화자의 동의를 나타낸다면 동사구 전치문은 그 명제를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닌 하나의 명제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장 중에서 문장의 구성성분을 전치시켜서 어떤 효과를 얻고자 하는 전치현상 중 동사구 전치의 통사론적 특성과 담화·화용론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통사론적 특성으로는 동사구 전치는 주제화를 통한 뿌리문 변형의 하나로 주로 주절에서 나타나고 종속절에서 전치가 되면 비문이 되는 주절현상을 보이는 데 때로는 종속절에 나타나기도 한다. 어떤 구문이 매립될 수 있고, 언제 매립될 수 있는가를 알아봤고, 동사구 전치문에서 전치된 동사와 형태상으로 동일한 동사가 앞 문장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명시성 조건과 동사구가 전치될 때 동사구만 전치되는지 동사구를 넘어가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요약 부분에서는 이제까지 다뤘던 통사론적 특성에 대한 언급과 한 가지 예를 통해 통사론의 관점만으로는 동사구 전치현상을 설명하기에 충분치 않고 더 설득력 있고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동사구 전치의 담화·화용론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담화·화용론적 특성으로는 명제확인과 명제유보로 나눌 수 있다. 명제확인이란 이전의 담화 속에 있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신념을 확인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독립적 명제확인, 양보적 확인, 정도 확인 이 세 가지로 나뉘어 진다. 독립적 명제확인은 앞의 담화에서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나 전제되어 있지 않는 명제를 확인하는 것이고 양보적 확인이란 앞 문장과 뒤에 따라오는 동사구 전치 문장 사이에 의미적 대립이 생기고 이 대립된 관계에서 앞에서 제기된 명제의 사실성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정도확인(Scalar Affirmation)이란 앞 문장에 나타난 개체가 정도(degree)나 등급(scale)을 나타내는 서술어가 포함되어 있는 뒷 문장에서 최고의 등급에 속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명제유보란 명제확인과는 달리 앞 문장에 나타난 명제에 대해 화자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미루는 것이다. 명제 유보에서는 앞 문장의 명제가 뒤에 따라오는 동사구 전치문장에 나타나 있어야 하며 연결사는 주로 *if*가 쓰인다. 마지막으로 명제 유보에서는 Horn(1972)이 주장한 것처럼 전제된 것은 보다 적은 정보를 주는 방향으로 유보되어야 한다는 규칙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사구 전치문에서 확인되거나 유보되는 명제는 반드시 앞 문장에 제시되어

야 하는 데 이것을 동사구 전치문의 지시조응적 관계라고 한다면 그 범주는 앞에 놓인 세 문장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사구 전치와 시제, 상, 서법조동사와의 관계에서는 동사구 전치는 *do*나 *did*를 통해 현재나 과거에서만 명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제와 상을 나타내는 *have*나 *be*진행형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동사구 전치문에 서법조동사가 포함되면 확인하고자 하는 명제에 서법조동사의 의미가 덧붙여진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서법조동사가 포함된 명제는 다른 명제확인처럼 이전 담화에서 논리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하며 명제유보에서 서법조동사가 포함되어 유보된 명제는 명제의 사실이 아닌 서법조동사의 의미가 초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사구 전치와 명사구 전치, 형용사구 전치의 관계에서는 명시성 조건을 충족하고 명제확인이나 명제유보와 같은 기능을 하며 전치문의 끝이 *be*와 같은 조동사로 끝난다면 명사구 전치문과 형용사구 전치문도 동사구 전치문으로 볼 수 있지만 형용사구 전치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be*조동사로 끝나 형용사구 전치문인지 동사구 전치문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동사구 전치문과 *So*전치문(*So Preposing*)은 비슷해 보이지만 *So*전치를 조응으로 봤을 때 조동사 구성요소의 어떤 하위 부분까지도 다룰 수 있는 데 비해 동사구 전치에는 제약이 많았고 기능적으로는 *So*전치문이 명제에 대한 화자의 동의를 나타낸다면 동사구 전치문은 그 명제를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양인석, 『*Linguistics Explorations*』 (서울: 한신문화사, 1993), pp.1-24.
- 박승윤, “동사구 전치는 주제화이다,” 『언어』, 24, no.4 (1999), pp.557-77.
- 박원경, “전치문과 도치문의 담화화용론적인 비교,” 『한국영어학회』, 3, no.1 (2003. 3), pp.37-54.
- 이광호, “동사구 내 주어 가설과 동사구 전치,” 『신영어영문학회』, 23, no.- (2002), pp.159-175.
- 조동인, “동사구 이동에 관한 연구,” 『한국현대언어학회』, 23, no.3 (2007), pp.453-71.
- 남범수, “동사구 전치에 관한 연구: 담화 화용론적 · 통사론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5)
- 박원경, “영어에서의 동사구 전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3)
- 방은솔, “소절의 통사적 범주에 대하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 조희숙, “영어 중첩서법조동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8)
- 최유정, “영어의 동사구 전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2)
- Birner, B.&G. Ward, *Information status and Noncanonical word Order in*

English (Amsterdam: John Benjamins, 1998)

- Emonds, J., *A transformational approach to English syntax: root, structure-preserving, and local transformations* (New York: Academic Press, 1976), pp.30-32.
- Gazdar, G., Pullum, G., and Sag, I. A., "Auxiliaries and related phenomena in a restrictive theory of grammar", *Language*, 58, no.3 (1982), pp.591-638.
- Georgia M. Green, "Main Clause Phenomena in Subordinate Clauses", *Language*, 52, no.2 (1976), pp.382-397.
- Hankamer, J. and Sag, I., "Deep and surface anaphora", *Linguistic Inquiry*, 7, no.3 (1976), pp.391-428.
- Hooper, J. and Thompson, S.A., "On the applicability of root transformations", *Linguistic Inquiry*, 4, no.4 (1973), pp.465-97.
- Horn, Laurence R., "Presupposition, theme and variations", *Chicago Linguistic Society*, 22, Papers from the Parasession on Pragmatics and Grammatical Theory (1986), pp.168-192.
- Langacker, R. W., "Movement rules in functional perspective", *Language*, 50, no.4 (1974), pp.630-64.
- , "Raising and transparency", *Language*, 71 (1995), pp.1-62.
- Reinhard, T., "Definite NP anaphora and C-command domains", *Linguistic Inquiry*, 12, no.4 (1981), pp.605-635.
- Ward, G. L., "The discourse functions of VP preposing", *Language*, 66,

no.4 (1990), pp.742-63.

———,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Preposing"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5), pp.57-59.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영어교육	학 번	20068034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 선현진 한문 : 宣鉉珍 영문 : Sun, Hyun Jin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현대아파트 106동 1302호				
연락처	010-7566-8366 E-MAIL : yeongesaem@gmail.com				
논 문 제 목	한글 : 영어 동사구 전치에 관한 연구 영 어 : A study of VP-Preposing in English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9년 8월

저작자 : 선 현 진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